

친교에 대하여...

주 안에서 평강하셨습니까? 오늘은 성도와 성도 사이의 친교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는 위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아 영육간에 복된 삶을 살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친교 또는 교제라고 합니다.

☞ 사람은 교제하면서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1.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졌다는 뜻이고, 하와가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도록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창세기 1장 26절, 2장 18절]

2.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교제는 깨어졌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 및 사람과의 올바른 교제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 숨게 되었고 또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었습니다.

[참고 성경구절 : 창세기 3장 24절]

3. 하나님은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관계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의 회복된 것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에베소서 2장 12-19절]

☞ 친교는 주 안에서의 성도 사이의 교제를 뜻합니다.

1. 친교는 성도끼리의 사귄입니다.

친교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사귀를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친교로서가 아니고 전도의 대상자로서 사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 깊게 어울려서 자신의 영적 신앙 생활에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고린도후서 6장 14절]

2. 친교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과의 사귀입니다.

어떤 성도이든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도 그 교제하는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성도와의 진실한 교제야말로 건전한 친교가 될 것입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과는 양육적인 측면에서 친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3. 친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교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서로 교제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신앙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는 친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고린도전서 1장 9절]

☞ 왜 친교 해야 하며 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1. 친교 하는 이유는 그것이 축복이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시편 133:1,3)

『너희로 우리와 사귀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은 아버지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요한일서 1; 3-4)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로마서 12; 10)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베드로전서 4; 8)

2. 친교의 목적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있습니다.

성도의 친교는 성경 말씀과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교회안에서의 사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의 친교는 인간적인 유익이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간적인 사고로 전락하기 쉬운 것이 성도들의 친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친교는 이 지상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의 완성은 저 천국에 가서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바람직한 친교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성도들 사이의 친교는 예배나 기도회 등의 영적인 모임에서만 아니라 물질을 나누는 등 실제적이며 희생적인 교제를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1. 교회의 공적인 모임에 참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친교입니다.

주일 예배나 수요일 예배, 철야 예배 등 교회의 공적인 예배나 성만찬 예식 등에 함께 참석하여 아름답게 친교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성경구절 : 고린도전서 10장 16-17절]

2. 성경 공부나 기도회 모임 및 교회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친교입니다.

구역 예배나 각종 설경공부 모임, 여러 가지 기도회, 각 선교회 모임 등에서 서로 기도하고 활동함으로써 성도로서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참고 성경구절 : 사도행전 3장 1절]

3. 실생활에서의 실제적이며 희생적인 친교입니다.

식사를 함께 하거나 여행을 함께 가거나 서로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름다운 친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물질을 나누거나 다른 성도를 위하여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여 돕는 생활을 통하여 유익한 친교를 나눌 수 있습니다.

[참고 성경구절 : 베드로전서 4장 9-10절]

이와 같이 성도들 사이의 친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인간적인 과잉 친교로 인하여 성도들 사이에 편이 갈라질 수 있으며, 자칫하면 새로운 성도들과의 친교가 막혀짐으로써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친교의 근본 목적이 훼손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친교에 참여하고 계신다는 마음

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지만, 성도들의 친교는 영적인 친교 그 이상의 사랑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예배 출석을 통한 친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영적인 교제,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나누고 섬기고 희생해 주는 친교의 세 가지를 통하여 온전히 아름다운 친교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아름다운 친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일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용어 해설

- 아가페 -

요한일서 제 4장 8절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에서 사용된 '사랑'이라는 말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헬라어로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상기시키는 단어입니다. 아가페는 '필레오'나 '에로스'의 사랑과는 달리 '자기 자신을 사람들 대신 죽이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흔히들 아가페를 가르켜 '순수한 사랑'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자신까지도 아끼지 않는 희생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며, 이 사랑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예배안내	주일예배	1부 예배 : 오전 9시
		2부 영어 예배 : 오전 9시 (2층)
		3부 예배 : 오전 11시
		유*초등부 예배 : 오전 11시
		중*고등부 예배 : 오전 11시
	기타예배	새벽 기도회 (매일) 오전 6시
		수요 삼일 예배 저녁 8시 30분
		금요 찬양 기도회 저녁 8시 30분
		중*고등부 금요 찬양예배 저녁 8시 30분
	정기모임	화요일 / 한어 대학*청년부(영) 저녁 8시
		토요일 / 영어 대성경 공부(한) 오후 5시
		토요일 / 청소년 성경공부 저녁 8시
토요일 / 한국학교 오전 9시		

한인동산장로교회
NEW HOPE REFORMED CHURCH
 100 Herrmann Place, Yonkers, NY 10710
 사무실 : (914) 961-9250 / 1 (Fax 겸용)
 Website : <http://www.newhopeministry.net>

신발 속의 모래알...

아주 먼 거리를 걸어온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일이 무엇이냐고
 신문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물 없는 광야를
 홀로 외롭게 걷는 것이었습니까?"
 이 질문에 그는 머리를 가로 저었습니다.

"그러면 가파른 산길을 기어 올라가는 것이었나요?"
 역시 그는 머리를 가로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발을 헛딛어 진흙길에 빠졌던 때었습니까?"
 아니면 엄습하는 추위였습니까?"
 그 보도여행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내 신발 속에 숨어들어간 모래였습니다."
 이 대답은 전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자, 요즘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도 마음의 무거운 고통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령의 억눌림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환경입니까?
 혹은 다른 사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내 생활 속에 숨어 들어온 "자그마한 죄"때문입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내가 숨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해볼 수 있다는 고집,
 혹은 나만이 아는 숨겨진 어떤 죄 그런 것들은
 아주 사소한 것 같아도 나를 지치고 넘어지게 하는
 가장 무서운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내 영혼의 생기를 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즉시" 빼내야 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 진실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내 맘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과 생기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가져오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죄악은 없습니다.
 또 주님께 가져올 수 없을 만큼 큰 죄도 없습니다.